

발표자/제목: 마승혜(동국대)/'위안부' 증언소설 번역 분석을 바탕으로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이해 모색

토론자: 최희경(한국외대)

위안부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련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생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 각 분야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우선 더 늦기 전에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해법을 찾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범죄적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결론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이에 힘을 심기 위해 피해자의 경험과 아픔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공감하려는 각계의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희생된 개인의 삶이 치유되지 못하고 때로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논쟁거리로 격하되거나 사실관계마저 왜곡되는 사례가 생기는 만큼, 문화 간 소통이 핵심인 번역학 안에서 초국적 이해를 목적으로 위안부의 경험과 증언을 번역 현상을 통해 연구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숨 작가의 위안부 증언소설 <한 명>을 번역가인 풀턴부부가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문학번역의 출판과정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고 출판시장의 역학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토대로 한 번역사회학적 접근법으로 이 번역의 탄생과 수용, 번역을 둘러싼 번역가의 의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타당해보인다.

다만 이론적 배경과 텍스트 분석, 독자 반응에 이르는 논지의 전개를 고찰하면서 몇 가지 명료하지 않았던 점을 아래와 같이 짚어 두고자 한다. 이는 미리 배포된 PPT 자료의 축약성에 따른 불명확성일 수 있으며, 발표에서 보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 번역가(개인)의 신념과 의도를 일루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번역가의 일루시오인가, 번역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일루시오인가?
- 부르디외 사회학 개념들은 번역 텍스트와 독자 반응 분석 및 해석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 텍스트 분석에서 제시한 범주와 예문에 대한 번역사회학적 해석이 타당한가? (특히 감정 및 행동 묘사)
- 독자 반응 분석에서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이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가? (독자 후기 데이터 총량, 관련 내용 관심도 및 비중 등)